

한경 밀레니엄 포럼

# 무역 1조불시대 산업정책방향

2010. 4. 22 (금)

# 목 차

I. 최근 경제상황 평가 .....	1
II. 정책 대응방향 .....	3
III. 주요 정책 과제 .....	4
1. 전방위적인 국가간 산업·자원협력 추진 .....	4
2. 지속성장을 위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.....	7

# I. 최근 경제상황 평가

□ 세계 주요국의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양상

\*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성장률 ('09→'10, %) :

(美)△2.6→2.9, (日)△6.3→3.9, (中)9.1→10.3, (유로)△4.0→1.7, (韓)0.3→6.2

○ 하지만, 중동정세 불안, 유로 재정위기 우려 및 일본 대지진 등으로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저성장 기조는 지속될 전망

\* '11년 성장률 전망치(IMF, 4월) (%) : (美) 2.8, (日) 1.4, (유로) 1.6

□ 우리경제도 경제위기 극복 이후,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실물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,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

\* '10년 수출세계 7위, 사상최대 무역흑자 412억불, 6%대 성장활력 지속

○ (수출) 주력품목의 수출확대로 1분기 수출액이 1,318억불(전년 동기비 30.4%↑)로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나, 환율하락, 유가상승 등 향후 여건은 어려워질 전망

\* 1분기 수출 (%, 전년동기비) : (석유제품)68.3, (선박)67.9, (자동차)31.1, (반도체)14.2

\* 원/\$환율 : ('10.12)1,146.2→('11.1)1,119.4→(2)1,146.2→(3)1,120.5→(4.1~15)1,088.1

\* 유가(두바이:\$/B) : ('10)78.1→('11.1)92.5→(2)100.2→(3)108.5→(4.1~4.13)114.7

○ (투자) '10년에 큰 폭의 회복세를 시현했으며, '11년에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

\* 설비투자(전년동기비, %) : ('08)△1.0→('09)△9.8→('10)25.0

\* 600대 기업 투자계획(전경련, 4월) : 금년 114.7조원 (전년비 9.7%↑), 사상최대 전망

○ (물가) 원자재 등 해외 공급발 충격으로 전세계가 물가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, 3개월 연속 4%대 유지

\* 외국 물가상승 ('10.8→'11.3, %) (中) 3.5→5.4, (美)1.1→2.7, (유로) 1.6→2.7

○ (고용)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

\* 실업률[청년실업률] : ('08) 3.2[7.2]→('09) 3.6[8.1]→('10) 3.7[8.0]→ ('11.1Q) 4.2[8.8]

## 참고 : 무역 1조불 경제 전망과 의미

□ (전망) 금년도 우리경제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불 경제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

○ 1분기 수출이 최대치를 갱신하며 무역규모도 2,552억불(전년 동기비 28.1%↑)을 기록,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무역 1조불 달성이 가능할 전망

\* (수출) 선박 등 주요품목 수출확대로 1분기 1,318억불(전년동기비 30.4%↑)

\* (수입) 원자재가 상승으로 1분기 1,234억불(전년동기비 25.6%↑)

○ EIU, Global Insight 등 해외기관도 한국 무역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며 올해 무역 1조불 달성을 전망

\* Global Insight('10.11월)는 수출 5,320억불, 무역 1조 70억불 전망

\* EIU(Economic Intelligency Unit, '10.12월)는 수출 5,247억불, 무역 1조 68억불 전망

□ (의미) 무역 1조불 달성은 경제강국 진입의 상징

○ 세계 경제史에서 무역 1조불을 달성한 나라는 지금까지 8개 나라에 불과

〈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국가와 시기 〉



○ 무역 1조불 8개국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 (46.5%, '09년)에 해당

○ 금년에 우리나라가 무역 1조불을 달성하게 되면, '51년 무역 1억불 달성이후 60년 만에 무역 1조불 달성하는 것임

\* 달성시점 : 무역 1억불('51년), 100억불('74년), 1천억불('88년), 5천억불('05년)

## II. 정책 대응방향

◇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, 우리경제는 무역 1조불 달성의 목전에 있으나, 지속성 제고를 위해 質的 성장의 조화가 긴요

⇒ 무역의 질적 고도화와 지속성장이 가능토록 국가간 산업·자원협력 강화와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

□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하에서 국가간 산업·자원 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돌파구 마련 및 무역의 질적 고도화 달성

○ (신흥시장) 선진시장의 위축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수출 확대

\* '11년 경제성장 전망 (IMF) : 신흥국 6.5%, 선진국 2.4%

○ (선진시장) FTA를 활용,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, 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

○ (녹색주도) 기후변화협약에 능동 대응하고, 산업협력을 통한 스마트그리드 등의 수출 산업화를 본격 추진

□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압축성장 과정에서 구조화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전제되어야 지속성장 가능

○ (대·중소기업 격차) 동반성장의 기업문화를 정착·확산하고, 글로벌 중소·중견기업을 집중 육성

○ (근로생활의 질 저하) 노후한 산업단지를 젊은이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여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복합공간\*으로 재창조

\* QWL(Quality of Working Life) 밸리 조성

○ (인력 미스매치) 이공계 우대사회 구축을 기반으로, 다양한 산업기술인력 양성트랙을 마련하고, 신산업 핵심인재를 양성

### III. 주요 정책과제

#### 1. 전방위적인 국가간 산업·자원 협력 추진

##### 가. 도약하는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

- ◇ 신흥시장은 우리의 핵심시장이자 전략적인 파트너
  - 우리 수출의 70%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시장으로 성장
    - \* 신흥시장 비중(%) : ('90)30.3 → ('00) 48.6 → '10) 71.9
  - 도시화·산업화 진전 등으로 우리와의 협력기회 지속 증대
- ⇒ 중점협력 신흥국가를 선정, **Grand Package** 제공을 통해 신흥시장과 동반성장

- 전략적인 지역경제연구를 바탕으로 중점협력 신흥국가 선정
  - 국가별 특성, 기회·위협요인 등을 파악,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
- 산업육성 지원, 자원개발, 기후변화·신재생에너지, 원전·발전 인프라 등 **Grand Package** 제공



## 나. 선진국 시장에 대한 ‘新비즈니스 개척’ 지원

◇ 틈새시장 확대에 노력, 특히, 금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과 부품·소재분야의 전략적 산업협력 강화

- (日) 정부간 산업·자원협력 강화를 통해 협조적 보완관계 구축
  - “동경상품전” 등 일본 개최전시회에 우리 업체들의 참여 유도를 통해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의 기반 마련
  - 한-일 양국간 지진·해일 등 재난시 산업피해 공동대처를 위해 일본 부품·소재 기업\*과 국내 연관기업간 공조 강화
    - \* 국내 대기업과 납품관계에 있거나 국내기업의 對日의존도가 높은 기업 등
  - 희토류 확보를 위한 제3국 공동 진출 등 자원개발 공조
- (EU) 한-EU FTA, 녹색성장 확산 등 새로운 경제협력 환경을 비즈니스 기회 확대로 구체화
  - 한-EU FTA 발효시, 주요 수출품인 LCD 패널 관세(최고 5%)가 즉시 철폐되므로, TV, 태블릿 PC 등의 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
  - 신재생(덴마크, 독일, 스페인), 부품·소재(독일), 항공(프랑스), 디자인·섬유(이태리) 등 첨단·녹색·고부가산업 중심의 對韓투자유치 강화
- (美) 한-미 FTA, 산업협력위 활성화, 청정에너지협력 확대 등을 북미 및 세계시장 진출 강화 계기로 활용
  - 한-미 FTA 발효시, 자동차부품 관세(최고 4%)가 즉시 철폐되므로, 부품수출 확대 및 현지진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
  - 스마트그리드 협력, 청정에너지기술 공동 R&D 등을 통해 우리 녹색산업의 수출산업화 역량 제고

## 다. 국제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녹색 프로젝트 주도

◇ 新기후변화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국제적인 녹색프로젝트를 주도함으로써,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입지 공고화

□ “新기후변화 체제”에 선제적으로 대응

- 의무감축국 편입 압박, 국가간 온실가스 관련 무역조치 및 각종 규제정책 도입\* 등에 대해 중장기적 대응전략 수립

\* 국경조치(탄소관세), 탄소라벨링 등 각국의 감축 정책 및 조치

□ 국제적인 녹색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녹색산업을 수출산업화

- (스마트그리드) 국제기구 출범 및 국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녹색성장을 주도하고, 미국 등 선진시장에도 적극 진출

\* 우리나라는 20개국을 대표하여 스마트그리드 국제기구(ISGAN) 출범을 위한 실행합의서 서명 및 공동프로젝트 추진발표(4.6일)

## 라. 국가간 산업·자원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

□ 국가간 산업·자원 협력강화를 위한 「Promotion Tower」 구축

- 지경부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 추진

□ 중장기적으로 일관성·신뢰성 있는 산업·자원협력 추진체계 구축



## 2. 지속성장을 위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

### 가.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

◇ 협력업체의 기술개발, 원가절감 노력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바람직한 기업문화 조성 및 정착 추진

#### □ 공정거래 질서확립과 지속적인 추진체계 구축

##### ○ 효과적 납품단가 조정 등 대·중소기업간 거래공정성 제고

\* (하도급법 개정) 납품단가조정 신청권, 납품대금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, 기술유용에 대한 3배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

##### ○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반성장지수 산정·공표, 중소기업 적합 업종·품목 도출을 등 민간의 자발적 노력 유도

##### ○ 동반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실적 점검과 현장애로 해소

\* 분기별 동반성장 현장실태조사, Cyber 및 지역별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 운영

#### □ 산업계 전반으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

##### ○ **Best Practice** 발굴·확산을 통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성과 제고

\* (사례) 현대기아차 : 원재료가환율 5%이상 변동시 납품단가 신속 조정협의

##### ○ 협력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반성장 투자확대

\* 30대 그룹은 금년 동반성장에 1.1조원 규모 투자계획

##### ○ 범국민적 인식전환을 위해 동반성장 서적발간, 캠페인 시행 등 체계적 홍보 전개

##### ○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

## 나. QWL 벨리 조성의 본격적인 추진

◇ 우리 산업단지가 낡은 생산공간으로 방치되어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매력 저하

⇒ 노후한 산업단지를 3터(일터, 배움터, 즐길터)가 어우러진 산업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청년에게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

\* 해외 성공사례 : (프랑스) 소피아 앙티폴리스, (핀란드) 울루 테크노폴리스

□ (일터)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통해 근로생활의 질 향상

○ QWL 벨리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4개 단지\*에 주거·복지·편의시설 등을 확충

\* 반월·시화, 남동, 구미, 익산 단지에 '10~'13년간 총사업비 1.35조원 투입

○ 민간투자를 유치, QWL 벨리 펀드('11년 600억원 규모)를 조성하고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

□ (배움터) 청년들이 일하면서 성장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 구축

○ 산업단지 내에 대학, 기업, 연구소 등을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('11년 240억원 지원)

○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

□ (즐길터) 일하기 편리하고 문화생활을 누리며 육아도 병행

○ 도로 주차장 보강, 대중교통 확충을 통해 단지내 교통 여건개선

○ 단지 내 여유공간에 문화센터를 설치하고 문화·예술 강좌 제공

○ 산업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, 민간의 직장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 마련

## 다.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

◇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전문기업군으로 육성, 허리층이 두터운 산업구조 정착

### □ 중소기업 졸업촉진 및 졸업기업 부담완화

○ (법적근거)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의 정의와 지원근거 마련

\*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제외된 기업

○ (조세) 졸업이후 단계적 최저한세율 인상, R&D세액공제율 인하 등 세제 지원

○ (금융)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**On-lending** 방식의 자금 지원

### □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

○ (**World-Class 300 프로젝트\***) 글로벌 시장 진출의지와 잠재력이 큰 기업을 선정, 지원기관 협력을 통해 집중 지원

\* 2020년까지 세계적 중견기업 300개 육성 (11년 30개 지원)

○ (기술확산) 기업주치의센터를 지정·운영, 일정기업군에 밀착하여 기술관련 1:1 문제해결 서비스 지원

○ (마케팅) KOTRA “글로벌 동반진출 지원센터” 운영을 통한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 지원

### □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자기혁신 촉진

○ (회계투명성 강화) 중소기업 자율회계기준 마련 및 외부회계 감사 수감지원

○ (생산성 향상) 대·중소기업 “생산성 혁신 파트너쉽” 지원

## 라. 산업인력양성 시스템 구축

◇ 이공계 인재 유인 미흡, 산업인력의 양적·질적 미스매치 지속,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수급 불균형 등 우려  
⇒ 이공계 우대사회 구축을 기반으로,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해외 인력, 퇴직기술자 등 새로운 인적자원 활용 방안 마련

- 우수인력의 이공계·산업 유입을 위한 이공계 우대사회 구축
  - 기술인재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
  - 기술인재의 성장경로 개발 지원 및 다양한 복지제도 도입 등 국가기술인재에 대한 보상시스템 마련
  - 이공계 전문가의 성공 롤모델(Role Model) 제시 등을 통해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
- 산업의 인재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수준높은 인재 배출
  -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을 강화하여 수급의 미스매치 해소
  - 지역 대학·기업간 “교육-R&D-고용” 연계시스템 구축
    - \*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학 특성화, 산학융합지구 조성 추진
  - IT, SW,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미래 핵심인재 육성 추진
- 저출산·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인적자원 개발
  - 저숙련 해외 인력도입에서 탈피, 고숙련·전문인력 중심의 우수 해외인력 도입방안 마련
  - 고령·퇴직인력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확산 및 세대간 숙련순환 시스템 구축